

# 물난리·코로나에 초강력 태풍 복상...광주·전남 초비상

지리산권 최대 300mm 호우 예보  
코로나로 수해복구 늦어지는데  
전남지역 이재민들 '삼중고' 걱정

40년 만의 최악의 물난리에 이어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시름 하는 전남에 2012년 막대한 피해를 안겼던 '볼라벤'과 유사한 강도의 강력한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되면서 전남 전역이 비상 상황이다. 특히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바비(BAVI)'가 최대 3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를 26-27일 지리산권에 뿌릴 것이라 광주기상청 전망까지 나오면서 섬진강 홍수 피해조차 수습하지 못한 구례·곡성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24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북상하는 태풍의 오른쪽에 놓인 전남은 오는 26일 낮부터 27일 오전까지가 최대 고비다. 이 기간 예상 강우량은 50-100mm, 지리산권은 100-300mm다. 해안지역은 초속 40-60m의 강력한 바람이, 내륙에선 초속 35m의 강풍이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바람이 초속 25m가 넘으면 웬만한 지붕이 날아갈 수 있고 33m가 넘으면 기차 탈선도 가능하다. 초속 44m의 강풍은 커다란 물과 사 람마저 날릴 수 있고 이보다 더 강한 초속 54m의 바람은 웬만한 건물이 붕괴된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태풍은 지난해 태풍 링링, 2012년 내습한 볼라벤과 바람의 강도, 이동 경로 등이 비슷하다. 특히 지리산권에 집중 호우가 예보된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력한 태풍 복상 소식에 전남은 초비상이다. 지난 8, 9일 집중호우에 따른 물난리로 4000억원대

피해를 본데다 유실된 하천 제방과 산사태 발생지 등을 채 응급 복구하기 전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 제방이 유실된 도내 192개 하천 가운데 응급 복구가 마무리된 곳은 128개에 그친다. 나머지 64곳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토사가 떠밀려오거나 유실된 도로 120곳은 이날 현재 3곳을 제외한 117곳의 응급 복구가 끝났다. 산사태 지역은 더 비상이다. 최근 집중 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401개 소 가운데 응급 복구한 곳은 289곳에 그치고 112곳은 아직 복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수해 지역민의 걱정도 태산이다.

특히 구례·곡성·담양 등 피해가 큰 수해지역의 경우 농경지, 하우스 시설, 주택 등 민간시설 침수 피해 복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풍을 맞아 야할 형편이다. 물난리 이후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군인을 제외한 민간봉사자들의 발길이 사실상 끊기면서 이들 지역은 복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물난리로 발생한 이재민 5090명 가운데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한 주민도 318명에 이른다.

여기에 응급 복구한 하천제방과 도로, 산지가 이번 태풍에 견딜 수 있을지, 이번 태풍이 더 큰 물난리를 몰고 오는 게 아닌지 걱정이 꼬리를 문다.

구례 양정마을에서 소를 키우는 이복순(여·65)씨는 "섬진강 물난리로 기르던 70마리 가운데 41마리가 강물 따라 떠내려가 버렸고 축사 옆집도 물에 잠겨 무너졌다. 불행 중 다행으로 서시천 제방이 남아 아니라 아침에 무너지면서 복숨은 쉰다"며 "이런 상황에서 태풍까지 몰아친다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며 땅이 꺼지라고 한숨만 내쉬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육군 50사단 장병들이 24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곡성군 고달면 수해현장에서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문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지원시간 최대한 단축할 것”

광주 북·광산구, 효덕·대촌동 등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긴장감과 폭우 피해와 관련해 광주 광산구, 경기 이천시 등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피해 복구 계획을 조속히 확

정해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며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함께 나눠달라"고 호소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광주 북·광산구, 경기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등이다.

읍면동 단위로는 광주 남구 효덕·대촌동, 대전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등이 포함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시군구 단위 뿐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7일(7개 시군)과 13일(11개 시군)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문대통령 “종교·집회 자유 국민에 피해 입혀선 안돼”...의료파업 강경 기조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파업 움직임을 향해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료를 향해 "휴진, 휴업 등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달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중대 고비인 만큼 의료 방역 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불법 행동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떤 종교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하면

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회 강행 등 방역 방해 행위를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방역 방해 행위를 비판하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 배경에는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국가 방역 시스템이 기로에 섰다는 절박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신천지 때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며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발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종교·집회·표현의 자유,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도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서 단호한 대응

기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면모임 자체를 당부하는 메시지가 담긴 안중덕 샘터교회 목사의 글을 공유, 교회를 향한 협조 요청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목사는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라는 뜻"이라며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는 플라스틱 투명 칸막이를 설치한 채 참석 범위를 최소화해 진행됐고, 청와대 근무자들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때도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코로나 시국에...광주시 산하기관 기강해이 심각

DJ센터 직원 유흥업소 방문 확인 판정  
그린카진흥원 방문운영 소극징계 비난

광주시 산하 기관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와 역대급 수해 등 광주시민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일탈 행위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24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직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관해 사과했다.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유흥시설을 방문 하기도 확진검사를 받지 않고 생활하다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중대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시민과 고객들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7일 열린 포럼 현장에서 수행원 등과 접촉해 이용섭 광주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구 광주시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등 다수가 검사를 받기도 했다. 다행히 직원 등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정 사장은 "해당 직원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

를 통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그린카진흥원은 인사, 회계, 계약업무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식' 소극적 징계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결국 광주시는 그린카진흥원의 '방만 운영'에 대해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특검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진흥회 인사위원회가 자동차산업과의 징계 요구와는 달리 일부만 '견책' 징계하기로 하면서 '숨방망이 처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징상을 규명할 방침이다.

자동차산업과는 인사, 회계, 계약 등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10명(6건)을 징계해달라고 진흥원에 요구했지만, 진흥원 인사위는 2명만 '견책' 의결하고 나머지는 '징계 대상이 아니다'며 징계하지 않았다. 시는 배정찬 원장의 '갑질' 의혹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 처벌하리"고 지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가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자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 “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